



천주교벤투라성당

VENTURA KOREAN CATHOLIC CHURCH

SANTA BARBARA PASTORAL REGION / ARCHDIOCESE OF LOS ANGELES

본당신부 홍준기 예로니모

평협총회장 설은규 레오날드(805-814-3886)

주소 601 S. D St. Oxnard, CA 93030

사무실 805-253-0603

홈페이지 venturakcc.org

이메일 venturakcc@gmail.com

미사시간 안내

주일	목 (첫 주는 성시간)	금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	오전 9시 30분

성 김대건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2 0 2 5

0 9

2 1

주보

입당송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네.

제1독서 지혜서 3,1-9

화답송 시편 126(125),1-2 ㄱ ㄴ .2 ㄷ ㄹ -3,4-5,6(◎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
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로마서 8,31 ㄴ -39

복음 환호송 1베드 4,14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
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 9,23-26

영성체송 마태 10,32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
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전례상식

거양성체 때 성체를 바라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하나요?

성변화 직후 사제가 성체와 성혈을 들어 올려 보이고 교우들이 경배하는 관습은 중세에 도입되었는데, 13세기 초 파리 교구장 에우데스 드 쉴리 주교가 교구 사제들에게 내린 지침에서 처음 발견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제대가 제단 벽에 붙어 있었고 제대 앞에 선 사제가 신자석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체 성혈이 사제의 몸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성체 성혈을 높이 들어 신자들에게 보여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후 이러한 거양과 경배는 서방교회 전체로 확산되었고, 1570년 교황 비오 5세의 『로마 미사 경본』에 수록되면서 비로소 공식적인 예규로 정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체 성혈을 거양할 때 감히(?)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더 겸손한 경배인 것이라 여기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거양성체의 의도가 성체 성혈을 보여주어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거양성체 때 회중의 자세는 원래 장궤(무릎절)입니다.(2024년 1월 21일자 주보 2795호, 「기도하는 교회」 “성체 성혈 축성 때 하는 절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궤가 이미 성체를 향한 절이므로 다시 고개를 숙여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이나 직무 때문에 장궤를 할 수 없는 분들은 이때 서 있으며, 거양성체 직후 사제가 절할 때 함께 ‘깊은 절’을 합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43항) 그러므로 어느 모로 보나 거양성체 때 고개를 숙일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1914년 교황 비오 10세께서도 신앙과 애정을 가지고 성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나의 주님, 나의 참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교우들에게 전대사를 베푸시며 바른 성체 공경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지향

감사 기도

설옥진(카타리나), 권수현(세실리아) 자매님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다함께 감사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지향 기도

- 미니애나 폴리스 수태고지 성당 총격참사 희생자 19명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세상을 떠난 플레처 머켈(8), 하퍼 모이스키(10), 부상당한 어린이 14명과 성인 3명
-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과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알림니다

1. 산타마리아 공소 미사(봉성체)

- 일시 : 9월 21일(주일) 15:30 / 16:30
- 장소 : 산타마리아 가정

2. 성경공부

- 일시 : 25년 9월 28일(주일)
- 준비물 : 성경

3.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 썰 (Cell) 기도 모임 안내

- 매주 금요일 09:30 미사 후 10:00에 썰 기도 모임이 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4. 본당의 날 <날짜 변경>

- 주제 : 25년 정기희년 맞이 전교우 전대사
- 일시 : 10월 12일(주일) 9시 - 15시
- 장소 : 본당 (교중미사) 및 보나벤투라 미션 (전대사기도)
- 전대사 조건 : 교해성사 (8일 전까지 유효), 미사, 지정순례지에서 전대사 기도
- 세부일정
 - 1) 교해성사 : 9시-9시 55분, 11시-12시 30분
 - 2) 미사 : 10시
 - 3) 식사 : 12시 30분- 13시 30분
 - 4) 미션이동 : 13시 30분- 14시
 - 5) 전대사 기도 : 14시-14시 30분
 - 6) 미션 설명 : 14시 30분- 15시

5. 제 34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일시 : 25년 10월 18일(토) 09:00-16:30
- 장소 : 성프란치스코 성당 (2040 Artesia Blvd, Torrance, CA 90504)
- 점심 : 개별 준비 or 단체도시락(\$15)
- 입장 티켓 : \$20

6. 구역모임

9월부터 구역모임을 시작합니다.

- 구역모임은 2개월에 1번씩 이뤄질 예정입니다.
- 구역모임시 식사준비는 없이, 간단한 다과준비만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 공식 구역 모임시 개인선물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역모임시 자비심의 기도책자와 묵주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7. 본당 공사 자료집 열람

그동안의 본당 공사과정(3.11-7.23)을 홍보분과에서 책자로 제작하였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8. LA 교구 - 교황청 전교기구(The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후원동참

• 기 구 안내

교황청 전교기구는 교황님께서 모든 가톨릭 신자가 세계적인 사랑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립한 기구입니다. 후원금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중동에 있는 1,100개의 선교교구를 지원하는데 쓰입니다.

선교교구의 구체적 사업은 가톨릭 어린이 학교 교육사업, 의료사업, 수도자의 선교사업 등

으로 현지에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LA교구에서도 교황청 전교기구에 속한 여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말라위 릴 롱웨의 세인트 존스 가톨릭 초등학교의 교육, 식사 지원 및 로스앤젤레스 병든 가난한 이들의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클리니카 산타마리아 데 과달루페 병원 지원 등, 후원금을 많은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사도 20.35)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루카 6.38) 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의 나눔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 후원 방법

팜플렛 QR코드 또는 Missionsla.org 접속 >>> Menu >>> Donate>>> *6개 항목 중 1가지 선택 >>> One-time or Monthly 선택

(*항목 안내 : 어린이 선교회, 신앙 전교회, 세계선교주일, 성 베드로 사도회(아프리카 성직자 양성), 자연재난구호, 세계전교기구 목주세트)

전례안내

전례봉사자(독서) 안내

9월 21일 성김대건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순교자들 대축일	9월 28일 연중 제26주일
제1독서 : 윤원희 대건안드레아 제2독서 : 박기연 에스더	제1독서 : 정석건 대건안드레아 제2독서 : 반희선 마리아

재정소식

천주교 벤투라 성당 공동체는 본당 신자들의 아낌없는 봉헌에 의해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이웃 사랑 계명과 교회법이 요청하는 대로 자선과 희사를 순수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들의 정성				미사 참석/봉성체		
	교무금	헌금	기부금/기타	합계	본당	공소	합계
9월 7일	\$1,300	\$410 공소 \$240		\$1,950	39	5/1	45
9월 14일	\$750	\$324	\$1,000	\$2,074	34		34
9월 21일							
9월 28일							
합 계							

교무금 현황 박태진(7,8,9), 윤정구(9,10)

기부금/기타 현황 기부금 \$1,000 (김영익 안토니오, 김그레이스 켈마)